제331회국회
(임시회·폐회중)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9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3월12일(목)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준비상황 점검 및 현안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강원도
   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심사된 안건

1.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준비상황 점검 및 현안보고 ····· 1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강원도
   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주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9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준비상황 및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우리 특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및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일괄하여 현안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준비상황 점검 및 현안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강원도

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10시14분)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준비상황 점검 및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입니다.

존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준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회 개막일까지 채 3년이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정부는 강원도, 조직위원회와 함께 대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문체부가 종합적인 대회 준비상황을 총괄 보고드리고 강원도가 대회시설 준비상황, 조직위원회가 대회운영에 관련된 준비상황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대회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대회시설은 크게 경기장, 선수촌 등 대회 관련 시설과 대회 교통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모든 테스트이벤트 일정에 맞추어 강원도와 함께 공정관리에 최

선을 하겠습니다.

현재 신설 경기장 6개소는 모두 착공을 마쳤고 8~17%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완 경기장 2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보완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4개 경기장은 기존 경기장을 활용할 예정이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조기에 훈련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12개 경기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신설과 보완 경기장 6993억 원, 기존 경기장 보수 311억 원으로 총 7304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대회 관련 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폐회식 행사가 진행될 개·폐회식장은 평창군 횡계리에 4만 석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필수시설과 문화지원시설을 포함하여 1226억 원입니다. 평창에 신설될 선수촌은 현재 민간사업자와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며 평창 미디어촌은 알펜시아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릉선수촌과 미디어촌은 LH공사가 민간아파트 형태로 건설하여 2017년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올림픽 방송을 책임질 국제방송센터는 알펜시아 부지 내에 신설될 예정이며 현재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메인프레스센터는 신설하지 않고 기존 시설인 알펜시아컨벤션센터를 활용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대회 교통망입니다.

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교통망은 현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 중이며 모든 철도공사가 완공될 경우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106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원활한 경기장 등 대회시설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 16개 선이 현재 설계 또는 공사 중이며 15년 말부터 17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문화·관광올림픽 실현에 나서고 올림픽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개·폐회식 행사 준비를 총괄할 총감독 선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며 후보 공모와 연출안 심사를 거쳐 5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올림픽 D-1000 행사를 계기로 평창 문화올림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과 세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강원도 관광발전 종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올림픽특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4쪽 올림픽 홍보 강화입니다.

평창올림픽 준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올림픽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계기별로 평창올림픽 홍보관을 설치하고 공익광고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마스코트 발표 등 각종 계기별 행사를 통해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청년봉사단 등을 활용하여 해외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에 대한 집중관리 체제를 마련하여 올림픽 준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격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정부와 조직위, 강원도 간 업무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현안을 조기에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4월 중에는 조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공무원과 민간인력이 조직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올림픽조정협의회와 대회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상시 가동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종목 출전,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 출전, 메달 20개, 종합 4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국가대표와 지도자 지원인력을 확대하여 우리나라가 동계 종목의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국외 전지훈련,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지원 등을 통해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평창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종덕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특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도의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강원도민들의 감사인사를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기장 건설 등 올림픽 준비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다시 한 번 올립니다.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경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기장 건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기장은 모두 12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4개 경기장은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고 2개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합니다. 새로 짓는 경기장은 6개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건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8개 경기장에 총 6993억 원으로서 현재 15% 남짓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내년 10월까지는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완공까지 1년 6개월 남짓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완공까지의 시간이 많지 않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진입도로는 모두 16개 노선입니다. 진입도로 건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5607억 원으로서 9개 노선은 내년 10월에 완공하고 7개 노선은 후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후활용 대상시설은 12개로 설상 3개, 보조경기장을 포함한 빙상 8개 그리고 개·폐막식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후활용 주체와 계획이 결정된 곳은 모두 일곱 곳입니다. 1개소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으며 미결정 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기관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기장 건설 준비가 마무리된 만큼 지금부터는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문화올림픽·환경올림픽·평화올림픽·경제올림픽을 올림픽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교통대책과 숙식서비스, 재난안전 대책, 자원봉사자 운영 등 올림픽을 참관하는 관람객들이나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치밀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올림픽을 가장 성공적으로 치러내도록 하겠습니다.

5쪽, 건의사항 2건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 8일에 발의한 대회지원 특별법 중 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의 수도법 적용 특례와 수도법, 하수도법 원인자 부담금 감면안이 소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올리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개정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6쪽 특구개발사업비 국비보조율 상향 조정 건의입니다.

작년 1월에 정부가 지정한 올림픽 특구에 대하여 특구개발사업의 국비보조율을 현재 50%에서 75% 이상 지원을 건의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도의 현안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 앞으로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올림픽을 만들어 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문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조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계특위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제동계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운영 준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은 조직위, 정부, 강원도의 노력과 국회 동계특위의 지원 그리고 높은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간 준비상황을 되돌아보면 정부와 개최도시 간 협력 부족, 국내외 분산개최 논란, 사후활용 계획 부족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대내외적으로 총괄하는 조직위원장으로서 그간 현장을 발로 뛰고 관련 기관에 적극 협조를 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조직위의 노력과 역량이 일부 미흡했던 점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2월 테스트이벤트 일정을 고려하면 올림픽 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아 지금이 올림픽 성공 준비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관련 기관의 총체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직위가 중심을 잡고 관련 기관의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회 준비 전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직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조직위가 추진하고 있는 대회 운영 준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테스트이벤트 대비 운영체제 본격 전환입니다. 2016년 2월 테스트이벤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추진체계 구축,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운영인력 양성 등 테스트이벤트 준비에 집중하겠습니다.

2쪽 최상의 대회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선수·미디어촌 적기 건설, 숙박·교통 종합대책 수립, 최상의 식음료 서비스 제공 등 선수중심, 경기중심의 대회가 되도록 대회지원 시스템도 최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3쪽 최첨단 ICT 기반 구축 및 대회 안전 확보입니다. 세계 수준의 최첨단 정보통신 서비스와 방송·통신, 유·무선 인프라 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담조직 마련, 경기장 안전 확보 등 대회 참가자 및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 및 문화올림픽 전개입니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조직위 재원을 확보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와 홍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쪽 체계적인 대회운영 지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회 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며 현장중심의 조직개편, 성과제도 도입 등 우수한 인력이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조직위의 이런 노력들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직위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을 통해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회 운영 준비와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조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박혜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주선 박혜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혜자 위원 제가 우리 위원회에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위는 사실 평창올림픽에 대한 것이지만 U대회가 지금 굉장히 시급하지요. 지금 3개월여 남았기 때문에 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을 먼저 기원하고요. 그다음에 또 평창동계올림픽도 어떻게든 저희가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U대회가 3개월여 남았는데 보통 남북 간의 단일팀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자면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U대회의 남북단일팀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U대회를 통해서 왜 남북단일팀을 저희가 촉구를 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단순한 국민적인 자긍심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북 간의 평화 정착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한다면 국제스포츠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 통일의 분위기 조성 비용으로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북단일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가장 아쉬웠던 것이 결국은 흥행요인,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남북 간의 단일팀을 통해서 북한의 응원단도 오고 그랬다면 우리가 충분히 더 아시안게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흥행요인을 좀 마련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어들이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U대회와 관련해서 정부당국에서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북한의 응원단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관계없이 엊그제에 나온 보도를 보게 되면 통일부 고위 당국자,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위 당국자 이름을 들어서 단일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대단히 적절치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통일부에서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국제경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분위기 조성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지만 그에 앞서서 광주U대회에 남북단일팀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위원님께서 좀 협조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권고결의안을 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의안을 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남북단일팀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부담 갖지 않아도, 통일부에서의 어떤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국제적인 정세하고 맞물려 있는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촉구 결의안 정도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U대회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아마추어, 순수한 대학생들 간의 스포츠 제전이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 간의 교류에다가 정말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고 남북이 같이 함께 응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다른 의사진행발언 없으신가요?

우리 지원특위는 국제경기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대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지원을 하는 특별위원회의 임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우선 광주U대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성공적인 개최를 국민이 여망을 하고 있고 또 광주의 조직위원회 또 광주시민들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남북단일팀 구성 등을 비롯한 스포츠교류를 적극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33조의2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국제경기대회를 통해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33조의3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시행해야 된다'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33조의2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식 축사를 통해 가지고 금년 중에 남북한 간에 의미 있는 스포츠·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확대할 것을 기대한다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또한 2004년 6월 29일 날 안민석 의원 등 41명 의원이 발의한 북경 하계올림픽 남북한단일팀 구성 촉구 결의안을 제안을 해 가지고 2004년 7월

15일 날 본회의 통과가 됐었고 또 2009년 2월 20일 날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남북 간 긴장상태 해소 및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이 2009년 3월 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특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촉구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박혜자 위원께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야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원만히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예, 윤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간사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제경기특위 때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에 관련한 결의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제안이 돼서 '여야 간사 협의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앞두고 잠깐 의견을 나눴고 또 시작 전에 아마 여당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경기지원특위가 국제경기대회를 잘 원만하게 성사시키고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내의 국민통합적인 의미라든지 국제교류의 의미라든지 또 남북팀이 참석하는 과정에서는 남북 간에 좀 더 평화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대체로 평이한 내용에서, 선수단 참여는 이미 발표돼 있기 때문에 단일팀 구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 차원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국제경기특위 차원에서 권고하고 촉구하는 결의안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아마 시간적으로 충분히 서로 얘기하지 못해서 그런지 시작 전에 의견이 아직 다 맞춰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특별하게 이견이 많지 않으시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결의안들을 함께 채택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안으로 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남북 관계 팀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단일팀 구성이 다른 이유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렇지만 그동안 돼 왔을 때는 항상 긍적적인 효과를 냈던 것이 그동안의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남지 않은 U대회에 대해서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해서 특위의 결의안을 제안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빨리 좀 해 주셔 가지고 특위에서 결의안 채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야 간사님들 협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는 걸로 여야 간에 간사 합의가 됐습니다.

우선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과 횡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영철 위원입니다.

지난 3월 3일 제18차 우리 특위에서 동계올림픽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동계특위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논의를 좀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회의가 개최되게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어요. 우리 국민들이나 강원도민들은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긴박한 위험의식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가를 좀 봤더니 다른 데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발이 됐어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적 입장은 컨틴전시플랜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기장 이전배치를 추진했던 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어떤 경기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영철 위원 스노보드를 비롯해서 몇 개의 경기장을 하이원 쪽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사한 적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검토했었습니다.

○황영철 위원 검토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황영철 위원 왜 이러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원래의 보광이 원래의 계획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걸로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베뉴(venue) 사용……

○황영철 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컨틴전시플랜입니까? 비용의 문제가 비상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비용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 비용 문제가 비상계획입니까? 비상계획이라는 것은 이 경기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 논의이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서 이전계획을 추진했고요. 결국은 이 실사 이후에 논란만 거듭하다가 원상태로 복귀됐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건 돈을 아낄 수 있다면 저희는 아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자, 이렇게 봅시다.

돈을 아끼겠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횡성과 원주에 개최하기로 했던 종목들 그대로 개최했으면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비드 파일 요구사항에 맞춰서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횡성과 원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경기장 이전 재배치하겠다라고 논란이 되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감수했고 희생을 감수한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논란이 있다 보니까 해당 지역주민들은 '우리는 뭐냐?' 이렇게 해서 성명서도 내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조양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도와주는 일은 더 이상 분산개최를 거론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제발 더 이상 이런 일로다가 논란 일으키지 마시고 그리고 강원도민들이나 해당 지역주민들이 혼란 일으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보셨다시피 이미 조직위원장께서도 밝히셨고 분산개최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겁니다.

○황영철 위원 지금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위원들이 아직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이걸 우습게도 '땅콩회항'과 비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창 분산개최 회항' 이런 식으로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아직도 분산개최가 늦지 않았다'고 이렇게 여운을 남겨서 계속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다 힘을 모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에서, 2월 24월이지요, 10대그룹 회장단 간담회 때 평창동계올림픽 스폰서 문제에 대해서 간곡하게 요청하셨어요.

조양호 위원장님, 이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스폰서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 또 대통령 오찬 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전경련에 가서 회장단과 같이 이 스폰서 문제에 대한 진척 사항을 토의할 예정이고 이미 태스크팀이 폼이 돼 가지고 조직위와 전경련에 태스크팀으로서 어떻게 지원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겁니다.

○황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은 이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총예산 2조 540억 중에 로컬스폰서로 853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스폰서 계약 맺은 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아직 30%도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조양호 위원장님이 특별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서 목표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이런 여러 기업들의 후원과 국민적 관심으로 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조양호 위원장님 좀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경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정말 큽니다. 강원도 혼란 가중되고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의하셨어요.

분산개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동계올림픽 성공과 실패에 관해서 주로 비교가 되는 것이 나가노올림픽하고 솔트레이크동계올림픽이잖아요. 재정적인 면에서 특히 어떤 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트레이크시티 당시에 경기장이 11개였거든요. 그중에서 혹시 신축 경기장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정확하게……

○임수경 위원 3개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개·보수해서 사용하고 선수촌도 유타대 기숙사를 활용해서 지출을 최소화했는데 나가노올림픽은 반대로 5개 실내경기장 중에서 4개를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개·폐회식장도 신축하고 이러면서, 물론 단순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평창과 닮아 있는 도시는 솔트레이크시티라기보다는 나가노에 가깝다……

지금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분산개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분산개최를 하고 말고 이런 결론을 내기보다 다양한 대안들이 계속 치열하게 합리적으로 토론되고 검토되는 공론의 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하나로 통일돼서 가면 국민들이 납득하고 또 여러 가지 공론의 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분산개최 의미 없다' 말씀하셨고 도지사께서도 '분산개최는 이미 끝났다', 우리 조직위원장께서도 엊그제였지요, '천재지변이 없는 한 분산개최는 없다' 이렇게 매우 강경한 발언, 지금 가셨는데 황영철 위원님께서도 해당 지역의 일이고 하시니까 더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논의의 싹을 잘라 버리는 태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마는 것보다는 뭔가 공론의 장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 분산개최 입장, 앞으로 3년이나 남은 이 기간 동안 정말 이렇게 강경하게 변함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보기에는 지금 테스트이벤트 문제 때문에 만약의 경우 분산개최를, 말이 분산개최이지 사실 강원도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분산개최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요. 이렇게 다른 데로다가 베뉴 사이트를 옮겼을 경우에 과연 테스트이벤트가 가능할지에 대한 그 문제가 조금 첨예한 이슈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게 심각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수경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토론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임수경 위원 도지사님, 강원도에서 무주스키경기 분산개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시면서 답변하신 게요, 공식적 답변이 '국제스키연맹이 무주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세웠다는 걸 그 이유로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변함없으십니까? 그런데 최근 보도에 무주리조트 실사 때 아예 불가하다는 입장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올림픽대회 치르기 위해서 일부를 변경하면 가능한, 변경한 의견을 제시한 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강원도 설명과 국제스키연맹 답변이 다른 겁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것은 FIS에서 '국제규격에 미달한다' 이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수경 위원 아니요, '일부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것 혹시, 확인해 보시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수경 위원 이렇게 답변이 다르거나, 그러니까 최근 여러 가지 휴식일이나 준비기간, 테스트이벤트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너무 일축되고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게 매우 실망스럽고……

그다음에 조직위원장님, 조직위에 이 어젠다 2020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요. '평창부터 적용하는 건 좀 어렵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정말 조금 당황했어요. '2018년 이후 차기 개최국들이

평창의 시설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후활용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내 분산개최도 지금 거리와 이동 문제로 매우 강경하게 반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앞으로 열릴지 모르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시설의 사후활용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발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어젠다2020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컴팩트 위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분산개최가 올림픽룰에 의해서 불가능했고 그런 원칙하에서 비드북을 제출했고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중순까지 2020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분산개최를 검토할 수가 없었고 발표된 다음에 검토를 했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시설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분산개최가 불가능합니다.

분산개최라는 것은 단순히 경기장만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통·숙박시설·통신·안전 모든 것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또 방송시설까지, 물리적으로 테스트이벤트가 내년에 되고 테스트이벤트가 결정된 다음에는 장소를 바꿀 수가 없는데 그것이 지금 다시 다른 장소를 선정을 해서 경기장을 짓고 모든 시설을 인프라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산개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조직위의 입장입니다.

○임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임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테스트이벤트까지 1년 그리고 이벤트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2년 후에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이 불과 1년 내지 2년, 많이 남아야 2년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평창동계의 성공을 위해서 세 분께서 특히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대단히, 국민들이나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나 강원도민들 또 앞서 임수경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창 전부 힘을 모아 가지고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전 국민이 이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결집하여야 할 때 아직도 경기장 분산개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다못해 해당 지역까지 분명하게 아직 설득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보광에서 하려고 했던 스노보드 경기장의 정선 하이원 이전개최 검토 문제, 이것은 분명히 일단락이 된 겁니까, 기존의 보광에서 하는 걸로?

이제 오늘로서 경기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강원도민들이 전부 지켜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켜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단락을 짓는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노보드 경기장은 분명하게 보광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확실히 본 겁니까? 특히 우리 문체부 장관님, 문체부에서 검토를 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 생각에는 지금 아직도 보광과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보광으로 간다, 안 간다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장관님 말씀 듣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나 해당 지역 이런데가 답답해하겠습니까?

스노보드협회에서 하이원으로 이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스키협회에서는 오히려 찬성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우리 최문순 도지사님, 제가 알기로 스노보드협회에서 반대하는 걸로 공식 회신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강원도지사 최문순 죄송합니다.

협회가 여러 개가 있어서 지금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기선 위원 특위 끝날 때쯤에 이 부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세 분의 말이 틀리면 이것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아이스하키 남자 경기장의 원주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이라거나 사후 관리라거나 또 올림픽 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데 다 이 부분이 제일 좋다, 최선의 방법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동안에는 IOC가 반대를 했고, 그리고 IOC가 작년 연말에 분산개최 2018에 사전 적용 가능하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원주시에서는 지금도 늦지 않다, 물리적·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관계 실무책임자들을 불러서 이 부분 봤더니 도나 조직위는 이러저러한 관점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시기적으로 이전 불가능하다, 그런데 원주시는 아직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특히 아이스하키 경기장과 관련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실무책임자 회의를 하면서 처음 안 건데, 아이스하키경기연맹에서 남자 경기장하고 여자 경기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분산해서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까, 우리 지사님?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분산개최 논란은 어디 한 군데 둑이 터지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분산개최 논란을 좀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김기선 위원 그런데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우선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IOC가 또 관련된 국제협회에서 이게 승인이 가능한 건지, 이러한 명확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걸 제시를 해야 해당 지역 주민들도 '아, 이제는 안 되는구나', 아니면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걸 분명히 해야지 지사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논란이 확산될까 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억지로 입을 막는 걸로 이렇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합당한 논리도 막는 걸로 도리어 오해할 수가 있으니 세 분께서는 이 부분 대단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 가능하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계속적인 검토하겠다,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이 경기장과 관련돼서는 강원도가 기본적인 권한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니 지사님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두 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옮기는 것이 비용이 더 든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는 분산개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제가 한 2분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주선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김기선 위원 조금만……

○위원장 박주선 예, 하십시오.

○김기선 위원 죄송합니다.

원주와 관련된 또 다른 현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주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그동안에 강원도와 조직위원회에서는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나중에 해체하기 좋은 공법으로, 모듈러식 공법으로 지어서 원주로 이전을 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도 계속 달라지고 있고 조직위원회도 그렇고 문체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주 말을 바꾼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권한을 우선 갖고 있으니 좀 분명하게 지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들 입장은 2018년에 올림픽이 끝난 후에 이축이 되는 걸로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옮겨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공식 입장이고 정부에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선 위원 지사님께서 지난 지방선거 전에

우리 원주시장하고 그 이전비용에 해당되는 것을 반드시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금도 공식 입장이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강원도가 책임지고 조치를 해 주겠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하여튼 총리님께도 저희가…… 제가 지원위원회에 건의를 여러 차례 드렸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김기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우리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경기 오산 출신의 안민석 위원입니다.

그저께 조양호 위원장님께서 천재지변이 없는 한은 분산개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11시부터인데요—올림픽 분야의 전문가와 대학교수들이 분산개최 요구하는 기자회견 그리고 시민단체 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하도 그런 단체가 많았는데 새로 결성됐다는 건 듣지 못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처음으로 오늘 결성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많다고 합니까?

오늘 11시에 하는 것은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못 받았습니다.

○안민석 위원 묘하게도 그저께 위원장님께서 분산개최 불가능으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전문가들은 분산개최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참여하는 교수들 면면을 제가 봤더니 정치적인 성향의 교수들도 없고 또 올림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 온 교수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도 위원장님은 불가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저께 그 말씀이 혼자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부와 상의를 한 겁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전체적인 결론이 제가 났기 때문에 올림픽조직위에……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독자적인 판단이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예.

○안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자, 오늘 평창올림픽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신 장관님과 조직위원장님, 도지사님, 세 분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셨는데, 세 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합의하면 이게 다 관철이 된다고 국민들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면 세 분이 결정하더라도 어떤 청와대에 보고를 해서 추인을 받아야 됩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셋이 결정한다는 것은 정부 대표의 장관과 조직위의 대표, 강원도의 대표가 합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안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외에 따로 뭐 세 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그런 건 아닌 거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안민석 위원 자, 그러면 마식령 스키장 분산개최, 이 결정 역시도 세 분이 합의할 수 있는 겁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해외에 대한 것은 조직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민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그것은 IOC와 정부 차원에서 또 KOC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연맹에서 인정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키장, 어떤 경기든지 국제연맹이 인정을 해야지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제가 국제연맹에 알아봤는데요. 국제연맹은 IOC에서 요구가 오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IOC에다가 제가 알아봤어요. IOC의 입장은 남북한이 합의해 가지고 마식령 분산개최 요구해 오면 IOC에서 '우리는 평화를 올림픽을 통해서 지향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문제를 푸는 출발점은 남북한이 합의를 하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마식령에서 올림픽 몇 개 종목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남한 정부의 입장이 현재까지 없거나 내지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그것은 제가 대답할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조직위를 대표해서……

○안민석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대답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볼 때는 남북한 분산개최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남한은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볼 때는 횡성에서 지금 정선 옮기는 데도 이 난리가 나는데 과연 그게 의미 있는 논의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왜 의미가 없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한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도 이미 여러 차례 와 보셨지만……

○안민석 위원 자, 강원도 도민들이……

제가 여쭤 볼게요.

조양호 위원장님, 마식령 스키장이 원산에 있지 않습니까? 원산이 함경남도에 있습니까, 강원도에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그것은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안민석 위원 아니, 지금 지도상으로 원산을 딱 보면 강원도입니까, 어디입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강원도입니다.

○안민석 위원 강원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 분께서, 이것은 민족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의 이념이라는 게 뭡니까? 평화이지 않습니까? 분단국가에서 치러지는 이 올림픽이 어떻게든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지 딱 빗장을 걸고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런저런 핑계로…… 그런 자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조직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활강 종목, 마식령에서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제가 마식령 스키장에 대한 기술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직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민족 문제를 가지고, 올림픽을 가지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계기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0.001%의 가능성이라도 살려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신이 올림픽조직위원장으로서 민족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아직도 '데이터가 없다'…… 저는 데이터가 있어서 봤겠습니까? 신문에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자세를 저는 질타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활강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표고차이 때문에. 그러나 스노보드나 프리스타일은 3~4개월 보완 수리만 하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국제스키연맹에서도 하는 이야기예요.

자, 지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금강산에서 원산까지의 거리가 불과 85㎞예요. 고속도로가 뚫려져 있어요. 약 1시간 거리입니다. 그렇지요? 거리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다음에 종목으로도 프리스타일과 스노보드 종목 가능하다는 것은 국내 스키 전문가들하고 국제연맹에서도 '저것은 남북한이 합의하고 IOC가 승인하고 IOC를 통해서 국제연맹에 신청하면 가능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해 봐야 되는 문제지만요.

저 가능성을 우리가 살려 낸다고 그러면 평화올림픽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조직위원장님, 기업을 잘하셨으니까 흑자 올림픽 가능하다고 보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제가 알기로는……

○안민석 위원 기업인이시니까 딱 본인이 판을 보면 '아, 이게 돈이 남는다, 안 남는다' 아실 거 아니에요, 흑자 올림픽 가능하다고 보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제가 알기로는 LA올림픽 이외에는 흑자 난 올림픽이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렇지요, 나고야올림픽도 지금 17조 원 빚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흑자 올림픽 이미 물 건너갔어요, 그렇지요? 환경올림픽, 가리왕산 벌목하면서 환경올림픽 말도 꺼낼 수 없게 됐어요. 저는 우리가 지혜를 모았더라면 가리왕산 저것도 벌목하지 않고 얼마든지 활강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남은 것은 평화올림픽이에요. 이 평화올림픽에 대한 0.001%의 가능성, 저는 남북한이 힘을 모으면 저것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식령 호텔 저 사진을 어떻게 입수를 해 가지고 봤더니 아주 훌륭한 호텔이에요. IOC 위원들도 저기에 충분히 묵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북한은 어떤 입장이냐, 공식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언급을 했어요. 첫 번째, 장웅 IOC 위원이 '남북 개최하자. 마식령에서 하자'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 체육성 간부가 마식령 스키장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최근에 북측과 관련된 조총련 기관지에서 마식령 스키장 이용하자고 그랬어요.

시설은 굉장히 좋은 수준이라고 그래요. 중국의 스키 전문가들이 저기를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 시설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활강은 논란이 있어요, 표고차 때문에. 그러나 스노보드나 프리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2, 3개 종목 정도만 줘 가지고 어디 평창올림픽이 거덜납니까? 그 정도의 대한민국의 여유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식령에 두세 종목 정도만 분산개최해서 평화올림픽이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조 원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 금강산에서 음악회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만나고 체육인들이 만나고 정치인들이 만나고 그러면 이 평창올림픽이 남북평화 증진에 이바지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대를 세 분께서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2016년 12월까지는 이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라, 남북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예단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무책임하게 조직위원장께서 '천재지변이 없는 한은 분산개최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천재지변이 있더라도 분산개최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조직위원장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저는 성공적인 올림픽을 운영하는 것이 조직위원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내년 12월까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불행히도 테스트이벤트가 내년 2월 달에 있습니다. 2월 달에 테스트이벤트가 끝나면 그다음에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은 굉장히 좋고, 저도 그런 평화올림픽을 하고 싶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물리적으로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책임 있게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제가 전문가……

○위원장 박주선 안 위원님, 정리해……

○안민석 위원 이것 한마디만 할게요, 저하고 생각이 틀려서요.

제가 전문가들하고 공부를 한 바에 의하면 프리스타일이나 스노보드 경기는 1년 전인 월드컵 게임에서 테스트이벤트 하면 그걸로 국제경기에서 승인할 수가 있어요.

제 말씀은 그런 것 자꾸 핑계 대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 국제연맹을 설득하고 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요. 처음서부터 안 된다고 빗장을 딱 걸어 잠그시고 성공한 올림픽 만들겠

다,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겠어요? 대박 날 수 있어요?

저는 이 올림픽은 지금 쪽박의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대박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저는 평화올림픽이라고 보는 이야기니까 한번 제 말씀을 잘 귀담아들어 보세요. 그리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말씀이 계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요.

이강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후 위원 원주 출신 이강후 위원입니다.

평창올림픽이 삼수 끝에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두 번 떨어졌을 때 강원도민이 엄청난 실망감과 자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만에, 삼수 만에 되니까 커다란 기대와 환희를 갖고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도 안 남았습니다. 3년도 안 남았는데 분산개최의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연일 강원도의 신문이나 언론은 매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88올림픽이나 또 2002년 월드컵 때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문체부장관님,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국민들이 이 올림픽과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 지역과 다른 국민들이 의견이 좀 많이 갈라져 있는 것 같고 또 조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또 지사님하고도 자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도 사실은 견해가 좀 많이 갈려 있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강후 위원 글쎄요, 그런데 미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주무부처는 국무위원이신 장관님이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 올림픽조직위원회 또 강원도 또 문체부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는데 3개 기관이 서로 불협화음을 갖고 또 이상한 잡음만 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보면 얼마나 실망하고 또 기대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답답해 가지고, 아까도 보니까 테스트이벤트를 갖다가 1년 전에 하고 한 번 하면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테스트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장이 확정되고 건설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계도 거의 다 끝나 가고, 끝나가는 것도 있고 또 조만간 6월 달에는 착공하는 경기장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강원도도 자료 보니까, 강원도도 보니까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4페이지에 보면 '이제 올림픽이 3년 남은 현시점에서', 무슨 3년입니까, 2년 11개월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2월 6일인가 하는데 지금 오늘 3월 며칠이에요, 12일인가요? 그러면 3년도 안 남았는데 '올림픽이 3년 남은 현시점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3년 미만으로 남았다고 표현해야지 '3년 남은 현시점', 그러니까 강원도도 굉장히 느긋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계속 3개 기관은 협조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니 이것 참 저도 좀 답답합니다.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위원회 들어와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데 올 때마다 같은 이슈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확고하게 정부나 조직위나 강원도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문화올림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강원도 자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은 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평화올림픽, 경제올림픽,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또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가장 바람직한 올림픽 표현을 쓰셨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3개 기관에서 합심일체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올림픽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평창올림픽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지요. 강원도에서 봤을 때는 청정 강원도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서 관광지로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구체적으로 이것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게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대표적인 걸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홍보, 관광올림픽으로서의 홍보. 앞으로 이것을 잘 활용할, 올림픽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강원도를 관광지로서 홍보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게 있을 텐데 간단히 말씀해 보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금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경기장에 관련된 문제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이견이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광문화올림픽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문체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문체부에서 용역을 줘서 곧 용역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안을 많이 담아서 관광문화올림픽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3개 기관께서 더 이상 이 문제가 언론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국민의 자부심,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이강후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기관이 항상 같은 의견일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논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하려는 일과 지자체가 하려는 일 또 조직위가 하려는 일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하여튼 돈을, 국민 세금을 아껴 가면서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르려고 그러는 거고요.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이것이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시설들과 이런 것들이 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위는 조직위대로 운영이 잘되려면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러저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을 갖다가 언론이 자꾸 그것을 불협화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중요한 논의의 과정이라고, 이런 논의가 없이 그야말로…… 컨트롤 타워라고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느 한군데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오' 해 가지고 될 일이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의 의견도 충분히 서로 존중하고 정부의 입장도 지자체에서 수용하고 이러면서 합의되어야지 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강후 위원님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강후 위원 잠깐만 1분만, 30초만 더 할까요?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불협화음, 불협화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불협화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언론의 보도 보면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도 국민들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계속 말씀이 보면 '협조와 그것을 부탁한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이럴 경우에 올림픽이 성공적 개최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3개 기관이 잘 협심하셔 가지고, 협력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우려를 갖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언론에 그렇게 비쳐지게 된 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강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기관이 앞으로 더 자주 만나서 언론에 그렇게 서로 갈등을 빚는 모습보다는 합의를 해 가지고 어느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더 많이 비쳐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강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자 위원 박혜자입니다.

저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지자체의 재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점이 사실 제일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다른 대회…… 조직위나 문체부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성공시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재정 문제를 제가 오늘 좀 짚어 보겠는

데요. 강원도의 재정부채가 2013년 기준으로 9382억 원이네요. 맞지요? 그리고 공기업 부채를 포함을 하면 공공부채가 3조 6385억, 그래서 전체 지역 공기업 부채비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자치단체 중에서. 제가 구태여 다른 지표를 들지 않겠습니다, 강원도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다 짐작하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슬라이딩센터에서 매년 31억 그리고 또 피겨 경기장에서는 매년 33억 또 개·폐회식장에서 38억 이런 식으로 매년 경기장의 사후유지비용이 한 165억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알펜시아의 경우도 사실 이자비용만도 상당하게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1년에 500억까지도 이자비용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럴 만큼 상당한 재정부담이 큰데 이 165억도 우리가 사후에 우려가 되는데 이것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사후활용계획을 지금 면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사후활용계획을 준비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2011년 당시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했을 때 계획한 총예산이 8조 8196억이었어요. 그랬는데 올 1월에 국회에서 승인받은 것은 13조 4851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격차가 4조 6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늘어난 거예요, 원래 계획했던 당시보다도 올림픽을 치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0% 이상 추가적으로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원도에서는 지방재정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특구개발사업비도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5%로 올려 달라, 그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문체부도 올림픽특구, 국민적인 여망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지금 3조 3000억에서 3조 8000억 이상으로 올려 줬어요. 그래서 5000억 이상 증액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평창동계올림픽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제 3년 남았는데, 지금 50% 증액된 13조 4851억이면 되는 겁니까? 그 점부터 제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 액수의 대부분은 철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림픽에 들어가는 예산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조 5000억 정도로 최종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철도 비용이나 이런 비용 전부 다 올림픽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비용이면 앞으로 3년간은 변동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지사님께서 더 이상 올림픽 개최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 약속을 하셨고요.

물론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장 비용 자체는 7304억이니까 오히려 전체 비중 중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 큰 비용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5억 정도의 매년 들어가야 되는 사후관리비 이 문제가 클 것 같아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분산개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지요, 분산개최가 달리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행사를 치르고 나서 이후의 사후활용방안 때문에 분산개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를 수차례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분산개최가 '절대 없다' 이렇게 자르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행사 이후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분산개최를 정말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사후활용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렇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분산개최에 대한 논란이 사실 끊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만 강원도민들한테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후에 정말 강원도의 지역 발전의 계기가 돼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마치셨습니까?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2018평창동계올림

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개최지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고 국가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진정으로 성공올림픽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활동을 해 왔고 또 의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강원도적 차원에서 또 개최지 의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엑스포, 대구육상경기대회 그리고 각종 국가의 이벤트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고 지금처럼 이렇게 논란이 많은 적은 없었습니다.

강원도가 쉽게 말해서 변방입니까? 지금 11시에 시민단체들 분산개최한다고 하는데요, 분산개최 알고나 떠들라고 하십시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 철탑 500m 해야 됩니다. 지하 파야 됩니다. 2월 20일경 되면 눈 녹아서 경기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가서 점검한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해서 논란 개최하는 거예요? 지금 프레스센터에서 하시는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강원도가 충분하게 전략올림픽, 사후활용방안, 저는 충분한 논의도 거쳤고 또 문체부와 조직위와 함께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당신들은 얼마나 이 시설에 대해서 또 경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게 되면 본 위원은 적어도 네 가지 정책자료를 냈습니다. 사후활용방안 또 국가 신성장동력에 대한 올림픽에 대한 관계 그리고 긴급진단 또 창조올림픽, 네 가지의 정책자료를 냈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다시는 분산개최, 과잉투자, 일회성 논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은 불가불 따라야 하는 환경훼손도 일부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경제적 논란에서도 우리가 일부는 감수해야지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의 대이벤트를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11개국의 22개 도시를 다 분석했습니다. 나름대로의 국가 브랜드, 국가의 신뢰도, 그것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올림픽 자체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 평창에서 또 강원도에서 100년 만에 하는, 앞으로 향후 100년간 있지 못하는 이런 국가적 이벤트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겁니까?

저는 오늘 이후로 이러한 문제는 종식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히 시민단체, 일부 전문가들, 끝장토론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저것 보시면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지금 올림픽의 주요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에는, '문화·관광올림픽' 저는 뺐습니다마는, 이것은 김종덕 장관님 오셔서 또 조양호 위원장님 오셔서 '실질적으로 올림픽 네고시아(negociar), 지역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문화·관광올림픽' 뺐고요. '올림픽 목표 달성계획 부재' 이것은 제가 자료 집어넣었습니다마는 국가의 어젠다, 강원도의 어젠다, 개최지의 어젠다가 사실 불분명합니다. 목표지향점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산개최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문제를 지적합니다마는 올림픽 목표지향점에 대한 것이 부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강후 위원님 말씀하셨고 장관님도 공감하셨습니다마는 문체부·조직위·강원도, 업무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다소 여러 가지 이견이,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 주시고요.

경기장 시설 및 사후활용방안 그리고 일회성 투자 및 과잉 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수경 위원도 말씀하셨고 안민석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저는 스키를 한 사람입니다. 스키 심판도 했고 국제대회를 유치했고 또 올림픽 하는 데도 저도 유치본부장 했던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스노우하고 프리스타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적어도 1년 전에 국제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밑작업을 또 여러 가지의 제원표라든가 마식령 스키장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저는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도 끊은 놓지 않되 그러나 이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주 이것 불가능합니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철탑 500m 세워야 되고 밑에 지하 한 80m 정도는 파야 됩니다. 그래야만 표고차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무시해

버리고 간다는 말이지요. 이것 논란 제기하고요.

또 경기장 축소하는 것 이제 결정 났지 않습니까, 700억 줄이는 것에서 한 150억 줄이는 것으로? 이것도 이제 논란 종식됐고요.

개·폐회식장, 충분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 종식됐다고 보고 있고요.

스노보드 이전, 이미 우리가 보광에서 하기로 했으면 충분히 토론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광하고. 저도 보광 측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기업의 이윤 생각하지 말고, 손해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 대세에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충분하게 토론하세요. 미리 이게 공개가 되어 버리니까 양쪽의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분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오늘 이후로 완전히 좀 닫아 버리시고요. 만약에 보광에서도 이것 도저히, 손해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손실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했을 때에는 타협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원적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장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 분산개최도 이제 논란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좀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 저는 추가질의 마저 좀 쓰겠습니다.

평창올림픽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22개 도시 분석해 보니까 성공요인을 보니까 평창은…… 먼저 대한민국이 이제 1400만 명의 관광 인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정선·평창지역에, 강릉지역에 1000만이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설악산 부근에도 1200만 정도가 옵니다. 이미 관광인프라가 되어 있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근원적 차원에서 이제 관광대국으로 가는 평창올림픽은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접근성입니다. 제가 22개 도시 이렇게 평가를 죽 해 보니까 2시간 반 안에 들어오는 도시가 나가노 정도하고 토리노예요. 이게 1시간 반~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그 주변의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가 대부분 2시간 밖에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2시간 안에 있는 도시가 인구가 500만 명이 넘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소치, 이 인근지역에 2시간 30분 안에가 74만 명밖에 안 돼요. 접근성이 떨어져요. 두 번째로 벤쿠버, 350만 명밖에 안 돼요, 2시간 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구가. 토리노, 이게 조금 됩니다. 1200만 명 되는데 이게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솔트레이크동계올림픽을 했던 솔트레이크, 2시간 30분 정도 안에 240만 명밖에 안 돼요. 나가노, 2시간 정도 걸립니다마는 1500만 정도 됩니다, 동경이 신칸센이 뜨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볼게요. 평창올림픽은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인구가 2500만 명이에요. 이것 평창의 시설이 아닙니다. 강릉의 시설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시설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의 70%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동해바다를 1시간 안에 갈 수 있다, 1시간 안에 올림픽 지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한 혁명적인 이런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국민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계올림픽은 LA올림픽을 빼놓고는 다 적자를 봤습니다마는 이 동계올림픽은 충분하게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다이어트를 했고 사후관리를 충분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 혈세를 집어넣는 이런 재원에서도 고민했지 않습니까? 물론 개·폐회식장이라든가 슬라이딩센터는 불가불 필요합니다. 이것은 감내해야 할, 올림픽에 대한 우리가 감내해야 될 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충분하게 우리가 절약하려고 그랬고 국가재원이 잘 쓰이게끔 하려고 했고 사후활용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강원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충분히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호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직위원장님, 장관님 그리고 지사님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세요. 올림픽이 작은 행사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유럽에 며칠 전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메가이벤트이고 국가

의 신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어요?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에 이런 행사 우리가 못 합니다. 12년 전에 이런 행사 했지 않습니까? 월드컵 하고 이런 행사 없습니다. 이것 국가의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분 위원장님과 장관님 그리고 지사님께서 확신을 가지시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성공의 잣대가, 기준이 뭐겠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국가의 브랜드 가치입니다. 그리고 개최하는 도시에 대한 지역 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이제 더 이상 흔들지 마시고 대회를 준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익 위원 조양호 위원장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예.

○최동익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올림픽이 패럴림픽과 동시 통합 개최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컨트롤 타워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서 부위원장급 내지는 본부장급의 패럴림픽 조직이 만들어져야 다른 부서들과의 협력관계나 네트워크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른 올림픽들, 베이징이나 밴쿠버나 소치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더라도 대부분 국장급, 결국은 본부장급이나 부위원장급으로 해서 네트워킹이 만들어졌는데 평창만 유독 패럴림픽 조직을 부장급 선에서 하고 있어서 그걸 시정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위원장님 권한이 아니고 문화부 권한입니까? 그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누구 권한이나 조직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패럴림픽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을 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것은 이상적인 얘기이시고요. 기업을 하신 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그 이념을 실현하려면 조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조직을 부장에게 맡겨 놓고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 타워가 없이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제가 기업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고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 이념을 누가 실현합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그리고 평창올림픽보다 평창패럴림픽의 성공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요.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패럴림픽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님의 이념을 어느 부서가 실현하느냐고요. 부장급 책임자 맡겨 놓고 그것 실현이 가능합니까, 지금? 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본부장이 협조해서 말을 듣습니까? 어떻게 대한항공은 그러면 부장이 하는 지시사항을 이사가 다 듣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기조실장 직속이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합니다.

○최동익 위원 아무리 기조실장 직속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사람이 책임자가 부장인데 어떻게 본부장들이 그 지시를 따르고 기조실장을 통해서 한다는 게, 한 단계를 거쳐 간다는 게 제대로 지시가 됩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최동익 위원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그 조직 구성의 권한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조직위원장에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것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벌써 몇 년째 지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었고 노력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는 위원장 바뀌니까 다른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지요.

최소한 본부장급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컨트롤 타워가 이루어져서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왜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고 돌려 하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제가 그건 인수인계 받지 않아서 모르는 이야기지만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최동익 위원 작년에 문화올림픽 하시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 물어봤더니 개·폐회식밖에 없다, 예산 충분히 잡아 놨다고 해서 따지고 드니까 개·폐회식밖에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번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문화올림픽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 용역결과 얘기하셨는데 용역결과 언제 나오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냥 그날 말씀드린 건 대표적인 행사 중의 하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지금……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겠다 했는데 용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3월 말에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용역결과 나오는 걸로 제가……

○최동익 위원 그러면 문화올림픽에 대한 것은 현재 개·폐회식 외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보고서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물어보신 내용 중에서 패럴림픽 담당 직원들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부장 밑에 있는데요, 조직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국장급이나 본부장급 책임부서를 신설하는 걸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0년도 밴쿠버, 2012년 런던, 2014년 소치 다 7명, 3명, 8명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2명이 그걸 담당하고 있거든요. 인원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책임자의 직급이라든지 이런 게 이 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저희가 그걸 잘 검토해서 국장이나 본부장급으로 다 승격시키는 걸 고려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죄송하지만 저는 여태까지 패럴림픽 담당 직원 늘려 달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어차피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모든 부서가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컨트롤 타워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인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늘려 달라는 요청은 한 적이 없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최동익 위원 지난번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을 여쭤 봤었는데 어떻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작년에 한 25만 탑승객이 있었는데 올해 한 50만 정도 늘어날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인, 평창올림픽 때까지 양양공항의 국제공항 활성화, 제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시냐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게 분산개최냐 아니면 지금 강원도의 원안대로 가느냐에 대한 논쟁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미 분산개최에 대한 타이밍은 놓쳤다,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옮겨서 하는 데에는 많은 사회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은 합니다.

다만 이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는 정부 쪽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주장만을 하고 또 분산개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분산개최가 가능하다라는 주장만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아까 임수경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로 간에 주장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하면서 빨리 이 논쟁을 종식시켜 주셔야지 평창이 성공적인 올림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논쟁이 지속된다면 아무리 평창에서 분산개최 안 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반대적인 지적들에 대해서 그냥 불가능하다고 묵살하지 마시고 분명히 불러서

설득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논쟁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면서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조급한 시일에, 빠른 시일에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윤관석 위원입니다.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중파 방송이나 또 중앙지 신문에 다요번 주에 난 겁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내용을 담은 것들이 방영되거나 보도된 걸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게 어떻습니까? 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걱정이 돼서 나오는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판단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일부는 좀 근거 없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언론사들 역시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걱정을 어떻게든 좀 덜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지들이 올림픽을 개최하고 나서, 물론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사후활용 문제에 대한 어려움과 또 재정 적자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우리나라 동계올림픽도 어차피 그 흐름 속에 있는데 이것을 불안감을…… 또는 현실적 대안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안들이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후활용방안이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고 또 개최지에 대한 문제도 깔끔히 정리 안 돼 있고 시설에 대한 것도 우리 국내에서도 도내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고, 흔히 겪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다 보니까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비용문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국내 분산개최만 해도 한 3400억, 3658억 아낀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경제적인 것 외에 다른 것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맞다고 보십니까?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조금 과장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삼천몇백 억씩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주 최대한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윤관석 위원 물론 2015년 1월 16일 평창동계올림픽 4차 승인 예산에 보면 13조 4850여 억인데 이 중에 8조 넘는 게 단독 개최를 전제로 한 여러 가지 교통인프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냥 계산적으로만 딴 데 분산개최했을 때 국제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투자가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게 빠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간 비용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 대책이 전혀 지금 안 돼 있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저도 내용을 갖다가 다 봤는데.

이것은 아주 시급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건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흔들기다 이렇게만 또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윤관석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국 총괄적으로 문체부가 국제경기대회에 대해서는, 집행과 경기 운영은 해당 지자체에서 시설을 짓고 운영에 대해서는 조직위가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문체부에서 이걸 갖다가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역할을 갖다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윤 위원님 원래 다 짓고 나면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후활용의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윤관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회 치르고 나서는 그런데 치르기 전부터 이런 문제가 복합돼서 계속 지금 되면,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가 계속 나오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다르게 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라는 논쟁이 계속 되면 사실 성공적인 대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평창올림픽의 킬러 포인트(killer point)가 뭐냐,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평화적인 대회냐 이런 뭔가 잡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사실 아시안게임도 유치하고 나서 경기장 지을 때 시민단체에서 반납운동까지 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재정부담이 나중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하자 이런 서명운동까지도 일부에서는 돌입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항상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은 결국은 대회 준비에 대해서 소통하고 그다음에 명확한 청사진, 그 대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 또는 국내적인 나름대로의 대회의 특징, 강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정하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한 준비 이런 게 동반되지 않으면 계속적인 문제 제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분산개최에 대한 논쟁을 더 이상 여기 국회에서 종식시켜 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무슨 대안을 다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원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측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측면에 대한 것들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더 이상 그런 논란은 효과적이지 않다,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만 그냥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말씀 주신 세 가지, 비용, 사후대책, 청사진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물어볼 게 있는데 더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식의 부정적인 어떤 여론이 많이 형성되면 나중에 반전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공적으로 치르기에.

그리고 조양호 위원장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회 운영 전체를 책임지고 계신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직위원장께서 좀 더 중심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확해야 되고 포괄적으로 어떤 안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딱딱 잘라 버리는 식으로 하게 되니까 더 강력한 이견과 이런 것에 직면해서 소모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전체 방향을 잡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죽 준비했던 질의 세 가지들, 비용, 청사진, 사후활용 이런 것과 관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조양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지만 지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해서 끊은 것이지 전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분산개최도 만약에 2년 전에 시작을 했었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었지만 테스트이벤트가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분산개최에 대한 것은 물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저도 경영을 했고 경영학 박사이고 기업을 40년 동안 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에리사 위원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기대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경기인 출신으로 가슴이 아프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더 탄탄하게 다져져서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되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냥 여러 가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확신이 여러 국민들이나 학자들이나 언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

는 하루빨리 지금 어차피 분산개최를 안 하겠다고 확정하신 상태라면 이 어렵게 많은 돈을, 정말 굉장히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사후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

정말 역대 동계올림픽에 대한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책 없이 무작정 분산개최 없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임수경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어쨌든 신중한 검토를 다 해서 정말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꼭 내놓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위가 출범했다는 것은 평창올림픽의 모든 권한과 IOC 국제기구와 소통과 협력을 해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이에리사 위원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래서 조직위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문체부나 또 강원도에서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저는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많이 실어 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소신껏 실수 없이 정말 성공적인 올림픽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조직위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보니까 다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잡음이 안 날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조율이 되고 조직위가 힘이 실리는 상태에서 소신껏 국내외적으로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제가 평창특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스키점프대회를 만들었는데 풍향의 문제 때문에 위험해서 국내대회를 안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죽 대회를 해 왔고 드디어는 지난 전국체육대회 때 스키점프대회를 못 했지요. 그리고 작년 8월에 국제스키연맹에서 인증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제가 보완하는 여러 가지……

○이에리사 위원 똑같은 얘기를 그때도 하셨고 그때는 바람막이를 설치해서 하면 될 거라고, 다른 국제대회도 바람막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100m 이상을 날아 가지고…… 120, 150 날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람막이를, 공중에 있는 바람을 어떻게 차단하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때도 두 달 이상의 풍향의 속도를 재 봤을 때 절대 3.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8.0 이상이 돼서 대회를 취소했어요.

사실은 꿈나무 아이들이 시합을 나가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 없이 하셔 가지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서 지속되어 왔고요, 대회를 취소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은 IOC나 이런 데로 하여금 '스키점프 저것, 그래? 국내대회도 못 하는데 올림픽을 어떻게 치러?' 이런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특단의 대책이, 인증이 안 난 경기장에서 어떻게 시합을 합니까? 저는 국제연맹의 인증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이 대회 경기장을 위해서 53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설계부터 그것을 착공해서 완공하는 단계까지 저는 책임자의 문책이 꼭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들도 그게 어떻게 국제규격에 미달되게 됐는지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이에리사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결론이 난 건데 그 결론 난 것에서 어떻게 책임을 추궁하시겠어요? 여기에 스키점프대회를 설계부터 해서 완료할 때까지 담당했던 책임자,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것을 결정하셔 가지고 저희 방으로 보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정말 올림픽 유치하는 데 수치입니다. 꼼꼼히 좀 살펴서, 다른 문제보다도 경기장이 문제되는 것은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 담당자에 대한 문책해야 되는 부분을 좀 잘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관님, 저는 특위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유치하고 잘해야 되는 것 중요하지만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력을 잘할 수 있게…… 업무보고 때 제가, 광주U대회 것도 보고 이번에 그것도 보는데 사실 늘 똑같은 얘기, 허술하거든요. 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좋은 경기력이 발휘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특별하게, 예전에 없었던 게 저

는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히나 통합체육회, 생활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를 내년 3월에 출범시킨다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평창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리우올림픽, 이어서는 평창올림픽까지 업무의 혼선, 경기력의 향상을 위한 혼선 이런 것들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에리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하신 장관, 조직위원장, 지사님 말씀을 이렇게 다 듣고 보니까 황희 정승의 고사가 생각이 납니다.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일리가 있다, 그런데 다 일리가 있다고 해서 다들 하신 말씀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우리 최문순 지사님과 조양호 위원장님께서는 물리적인 이유를, 또 여러 가지 강원도민의 여망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분산개최는 현재는 불가능하다로 일단락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장관님은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세 기관이 의견 합의를 보지를 못하고 지금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분산개최의 여부를 결론을 짓기 위한 하나의 논의 과정이고 또 긴밀한 세 기관이 만나서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부추기고 그런 것은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서도 장관님의 명백한 결론을 제가 지금 캐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지사님이나 조양호 위원장님이 물리적인 이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국내 분산개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견해도 그러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가능하면 지금 지사님하고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분산개최는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돈이 뻔히 더 드는 줄 알고 이것을 아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아끼는 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래 정해진 보광으로 결정해야 되겠지만 아직도 현재 협상 중인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결정됐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거기서 협상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정이 안 됐을 때 협상이 가능한 거지 결정이 됐는데 왜 거기서 협상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아직 협상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주선 아니, 그런데 지사님과 조직위원장님 말씀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개최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러면 장관님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협상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아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불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언제까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제 생각 같아서는 정부 입장도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이 깊어 가는 것도 이해를 못 할 바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유치를 한 이상은 유치 목적이 뭐였냐를 다시 한 번 반추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위상을 고양을 시키고 또 중요한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도가 유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스포츠 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절대로 성공적인 개최가 전제된 다음에 경제올림픽이 되어야지 돈만을 생각하는 올림픽이 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개최 안 해 버렸으면 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명하고 지혜 있는 결정을 조속하니 내려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우리 최문순 지사께 한마디 여쭈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위원장 박주선 이 올림픽의 추진 방향이 문화올림픽, 그다음에 환경올림픽, 평화올림픽, 경제올림픽이라고 말씀 계셨는데 경제올림픽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세밀한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되는데 이번에 저희 여야 간사님들하고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유럽 출장을 갔었는데 마침 베를린에서 국제관광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관광 한국'을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있는 우리 문체부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국제적인 행사더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제주도와 전라북도가 참여를 했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를 할 강원도 그리고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하는 광주 이런 곳에서는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강원도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소개를 하고 홍보를 하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 가지고 평창동계올림픽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참여를 안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앞으로 해외 홍보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래서 강원도는 관광올림픽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계획이 치밀하고 방대하게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들 계신가요?

그러면 안민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되 여야 간사 간 합의로 보충질의는 3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특위에서 논란이 된 분산개최 이 문제는 사실은 정부와 평창조직위 그리고 강원도 3자 간에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IOC가 분산개최 권고하면서 이게 확산된 것이기 때문에 남 탓할 문제가 아니라 앉아 계신 세 분이 책임을 잘 지셔야 될 문제고요.

그런데 오늘 시종일관 IOC 핑계를 대시고 무슨 시간이 없다 그런 핑계 대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동경올림픽 비드파일하고는 다르게 시설 3개 안 짓고 기존에 있는 것 10개 옮겨서 짓겠다고 하는 결정을 IOC집행위원회에서 지난 3월 1일 날 했거든요. 그랬더니 IOC가 잘한 결정이라고 일본 칭찬해 주는…… 웹사이트 올라가면 있어요. 우리가 IOC를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요, IOC와 국제연맹에 우리가 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

장관님, 88서울올림픽 할 때요 남북체육회담이 87년 6월까지 지속됐던 것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전두환 정권보다도 지금 못해서야 되겠어요? 북경올림픽 때 남북단일팀 구성 위한 체육회담이 개성과 북한에서 다섯 번 진행된 것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들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이게 2007년 일이에요. 통일이 대박이라면서요. 대박날 수 있는 이 평화올림픽을, 왜 이렇게 대박을 외면합니까? 남북체육회담 이것 제안하실 의사 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안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한 간의 체육교류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도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말씀만 그러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국제랭킹이라는 게 있는데 국제랭킹에 따라 가지고 단일팀을 만든다든지 단일팀을 구성하게 될 경우에 실제로 대표선수 참가 기회가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됩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안 되는 방향, 저는 단일팀 이야기를 지난번에…… 단일팀이라는 건 그게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남북이 하나로 되는 한 과정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단일이라든지 공동응원이라든지 공동입장 그런 건데 지금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광하고 하이원, 그게 뭡니까? 프리스타일하고 스노보드 그 종목이지 않습니까? 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그냥 마식령에 한번 준다고 해 보세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자, 통일은 대박이다, 대통령 말씀하시고 대통령도 문화·체육교류 열심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무장관께서는 당연히 올림픽 앞두고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남북체육회담을 제안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일치하는 것이지요. 대통령 말씀하고 지금의 진행되는 것하고 불일치가 나요. 이 불일치에 대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국민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신중하게 잘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 것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요인들을 같이 함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한이 그렇게 체육을 통해 갖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관석 위원 장관께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 하시려고 그랬어요?

○염동열 위원 아니요, 하세요.

○윤관석 위원 유니버시아드대회, 아까 저희가 단일팀 구성 결의안도 여야 간사가 더 논의해서 다음번에라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김종 차관도 여기 참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준비를 하고 스포츠를 통한 남북통일의 교두보라는 측면을 갖고 있다라는 발언도 했는데, 10일 통일부 관계자가 '유니버시아드의 남북단일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래 갖고 이런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는데 이런 게 발언이 적절합니까? 문체부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회담도 아니고 앞으로 선수단도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남북단일팀 구성해 보자는 논의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일부가 앞장서서 도와준 게…… 급제동을 걸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 부처인 문체부에서는 아무런 더 이상의 또 발언이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남북단일팀과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한 간의 체육교류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입니다만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는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런가 하니 이게 체육팀입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같은 데하고도 사전에 분명히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선수들이 그만큼 나가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윤관석 위원 제가 경기적인 측면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것을 문체부 내부에서 검토할 수는 있는데 통일부가 무슨 경기 운영이나 선수를 갖다가, 국내에서 훈련한 선수가 단일팀 되면 좀 참여가 줄어드는 이런 것을 걱정하는 건, 그래서 발언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담당 부처로서 할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묻는 겁니다, 견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마 통일부에서는 남북한 신뢰 문제라든지 국민정서 같은 것을 생각해 갖고 남북한 교류의 컨트롤 타워로서 자기네들 입장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윤관석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체부가, 경기적인 면은 문체부가 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좀 다른 목소리도 내시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저희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염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열 위원 시간 충분히 썼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올림픽에 대한 목표지향점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산개최다,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개최도시는 개최도시대로, 국가는 국가대로의 정확한 목표지향점이 사실은 설정돼야 되거든요. 환경, 평화 그리고 문화, 경제는 너무 두루뭉수리해요. 여기에 대해서 액션 플랜이 좀 있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목표지향점이 분명하면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런던올림픽은 런던의 동부지역을 재생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어젠다, 런던시의 어젠다가 결합이 돼서 지금 완전히 바뀐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올림픽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두 가지입니다.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신성장동력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이 개발되는 겁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어서 강원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지역 균형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가가 봤을 때 15개 도시 중에서 하나의 도 아닙니까? 이 도가 몇백 년 만에 이러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는 강원도대로의 목표지향점을 설정해야 됩니다, 관광이냐 아니면 다른 그린시설이냐, 환경시설이냐. 그래서 이러한 메가이벤트를 통해서 강원도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고 하는 목표지향점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최도시는 개최도시 나름대로, 저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배후도시로서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지향점으로 군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또 목표지향점을 세울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목표지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화냐, 그게 국가의 브랜드 가치냐, 신성장동력이냐, 강원도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이냐 하는 목표지향점이 제가 어느 책을 봐도, 어느 브로슈어를 봐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장관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좀 늦었습니다마는 지금서부터 확실한 국가의 목표지향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액션 플랜을 각각 다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만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간다고 한다면 분산개최, 과잉투자, 절약 이런 것 다 해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경제올림픽 좋아합니다. 저도 슬라이딩센터에 대해서 1200억 들여서 저것이 과연 고물로 남을 것인가 걱정을 합니다. 바로 저희 집 앞에 있거든요. 그러나 불가불 감내할 건 감내해야 된다, 국가적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줄여야 할 건 줄여야 한다, 경제올림픽이라고 한다면 줄여야지요.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목표나 지향점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그냥 보고가 아니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어떻게 치르겠다, 경제올림픽은 어떻게 치를 것이고 문화관광올림픽은 어떻게 치를 것이고 평화올림픽은 어떻게 치를 것이라고 하는 국가적 어젠다, 강원도적 어젠다를 만들어서 그것을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회의원들도 안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러한 논란은 종식됐으면 좋겠다, 정말 새로운…… 그래서 저도 오늘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평창동계올림픽은 다른 개최국이, 개최도시가 했던 것과는 좀 판이하게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2500만 명이 있고, 한 시간에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굉장한 성공에 대한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안심하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도 확신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제가 세치 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충분한 조사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정말 종식시켜 주시고요. 또 우리 여야 위원님들 전부 다 종식시켜 주시고 오로지 성공올림픽을 위해서 함께 나가자 그리고 이제 중지를 모으자, 국민적 관심, 여러 가지 붐업을 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관석 위원님 질의에 장관께서 지금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준비해 온 선수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3월 3일 날이었던가요? 3월 3일 날 이 특위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광주U대회 조직위원장 겸 광주시장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석을 해 가지고 남북단일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순수 경기적인 측면에서 장관께서 확인해 보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 국제경기특위법상 국제경기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또 남북체육교류를 증진하고 또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가지고 또 역량 과시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고 이렇게 법에 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금년 삼일절 경축식에도 올해에 의미 있는 체육교류의 확대를 소망한다고 천명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 주무장관의 입장에서는 또 현재 U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의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관철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전에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건 아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 총리 주재의 U대회 관련된 회의를 했었고 지난번에 2차관 주재로 TF팀이 만들어져 갖고 거기서도 협의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장애요인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거기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주선 저는 장관께서는 장애요인을 극복을 해 가지고 성사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단일팀 구성 외에 북한을 통한 성화봉송 또 응원단 이런 문제도 사실은 문체부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집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많은 국비를 투입을 하고 지방비를 투입을 해서 개최하는 대회가 성공을 하고 또 흥행이 되고 하려면 이런 역할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광주U대회 단일팀 구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잠정적으로 금년 3월 하순 무렵에 다시 한 번 특위를 개최해서 새누리당 위원들께 검토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해 주고, 문경에서 개최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이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 논란, 스폰서십 유치 문제 또 평화올림픽으로서의 추진방안, 경기장 관리비용 등 사후활용 문제, 패럴림픽·올림픽 조직 문제 등 많은 지적과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논의는 스포츠교류를 통해서 남북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고 국내외적 관심을 모음으로써 대회 흥행의 기반을 마련하며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위 차원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정적인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깊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의미에서 3월 하순 무렵에 그때 여야 합의가 되면 결의안을 다시 한 번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체부장관, 강원도지사, 대회조직위원장 등 관계자 모두는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의 지적과 조언을 유념하셔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강원도민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과 함께 하는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권성동·임수경 위원이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을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덕 장관님, 최문순 도지사님, 조양호 대회조직위원장님과 해당 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권성동	김기선	박주선	박혜자
안민석	염동열	윤관석	이강후
이에리사	이한성	임수경	최동익
황영철			

○청가 위원(1인)

김 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박기영
전문위원	이정화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강원도지사	최문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조양호